

성인지 예산서 개선 방안

수행과제명 : 성인지 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Ⅲ): 성인지 예산서 작성 모니터링 및 추진 역량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과제책임자 : 김영옥 선임연구위원

Tel: 02-3156-7131, e-mail: youngkk@kwidmail.re.kr

요 약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올해 국회에 제출된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는 재원배분과 관련된 성별 정보를 담고 있는 정부 최초의 공식적인 예산문서로서의 의미를 가짐. 그러나 제도 시행 첫 해이니 만큼 향후 개선되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음.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올해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성인지 예산서가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된 해임.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는 재원의 배분과 관련된 성별 정보를 담고 있는 정부 최초의 예산 문서이며, 지난 10년 간 정부가 추진해 온 성 주류화 전략의 예산과정으로의 확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 성인지 예산 활동은 현재 90여개 국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성평등 정책의 하나이지만, 성인지 예산서가 안정적으로 발간되고 있는 국가는 그리 많지 않음. 성인지 예산서는 성평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예산서의 형식, 즉 예산이라는 언어를 통해 보여주는 정부의 공식 문서이며, 성평등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우리는 매우 선진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시행 첫해인 만큼 향후에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음

2. 정책의 추진방향

- 국가재정법은 성인지 예산서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제26조)로 정의하고 있어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적 분석 보고서로서의 위상을 가져야 함. 그러나 올해 제출된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는 예산에 대한 의사결정과 무관한 단순 사업 설명자료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었음. 대한민국 정부의 이름으로 제출되었지만, 각 부처에서 제출한 자료를 단순히 취합한 것이어서 정부가 성평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정책적 수단과 자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왔고, 차기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지, 각 부처의 성인지 예산서들은 성평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 것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가 없음. 각 부처가 제출한 사업별 설명 자료는 각 사업의 대상자와 수혜자의 성별을 구분한 통계자료들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시된 통계에 대한 설명,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제도적, 구조적 원인분석, 대안 및 개선방안 등 분석과 향후 계획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음
- 제도 도입 첫해이므로 제도적 여건의 미비와 사회적 공감대의 폭이 좁은 현실적 요인이 작용했으리라고 보지만, 향후 성인지 예산서는 성평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문서로서, 예산사업 계획서의 성격을 가지는 문서로서의 위상을 확실하게 정립해 나가야 할 것임. 따라서 다음과 같이 성인지 예산서의 개선 방안을 제안함
- 첫째,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을 위한 정부의 비전, 목표, 그간의 자원배분 추이, 차기년도 자원배분 방향, 그리고 각 부처의 성인지 예산서 작성 현황 등을 포괄하는 총괄부분이 포함되어야 함. 부처별 성인지 예산서를 취합한 형태 이상의 것으로 대한민국 정부 명의로 문서로서의 성격을 갖추어야 함

- 둘째, 성인지 예산서에 사업별로 포함되는 분석대상 사업은 성평등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른바 ‘성중립적’으로 보이는 사업(성별영향 분석사업)을 중심으로 하되 재원이 성불평등한 방식으로 배분되고 있는 사업의 경우 그 원인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해야 함. 성평등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양성평등정책사업은 사업별 분석보다는 예산서의 총괄 파트에서 전체 예산의 추이와 자원배분의 중점사항을 중심으로 한 총괄적인 분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셋째, 성인지 예산서 작성 업무가 보다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여성부에 성인지 예산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함. 여성부는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 업무를 주관하며, 기획재정부는 지침 및 양식, 부처간 협의 및 예산서 심의 업무를 주관함.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재정부와 여성부가 공동으로 협의하여 작성함
- 넷째, 사업별 성인지 예산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성별영향평가를 기실시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성인지 예산대상 사업으로 선정함. 200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중앙행정기관에서 수행된 성별영향평가 사업의 수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초기단계에는 성별영향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사업도 대상사업으로 포괄하되, 점차적으로 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위한 사전과정으로서 성별영향평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3. 정책효과

- 올해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의견조사』에 따르면, 성인지 예산서 작성 경험은 담당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업이 여성과 남성에게 어떻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성별에 따른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음.

- 궁극적으로 성인지 예산서는 예산과 자원배분 구조를 성평등하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담당자들이 자신의 사업을 성평등 관점에서 되돌아 보고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의식개선의 효과도 가지고 있음. 이러한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사업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며, 공공 재원이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을 것임

- 또한 국내에서의 성인지 예산서의 성공적 시행과 정착 경험은 앞으로 개발원조사업 공여국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내실있게 수행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1990년대 중반 성인지 예산 활동의 전 세계적 확산 이후 ODA에서의 성 주류화는 커다란 흐름을 형성하고 있으며, 성인지 예산 활동은 상당한 강조점을 가지고 시행되고 있는 사업 중 하나임. 성인지 예산서의 발전 경험은 개발원조사업에서 성인지 예산 활동을 확산해 나가는데 밑거름이 될 것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성인지 예산서 발간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 많은 국가들에 대한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임

- 성인지 예산서의 지속적인 발간은 성평등의 관점에서 자원배분의 흐름과 추이를 가시화할 수 있으며, 동시에 성평등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게 될 것임. 성평등은 모든 선진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이자 국가의 경제발전 수준을 가늠하는 하나의 척도가 되고 있음. UNDP, WEF(World Economic Forum) 등이 매년 발표하는 성평등 지수 상에서 한국의 위치는 경제발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성인지 예산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을 가늠해 보고, 성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노력과 의지의 적절성을 진단해 볼 수 있는 장치로서 기능하게 될 것임. 이를 통해 경제발전 수준에 부합하는 성평등 국가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될 것임